



동·서양 자연관의 차이를 한 화면에

“이 그림은 당시 전주대학 나의 연구실에서 본 실제 풍경에서 화상을 얻어 그린 작품이다. 전주에서 10여Km 정도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인 효자동으로 캠퍼스를 옮긴 전주대학은 당시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연구실에서 창 밖을 보니 운동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붉은 황토가 벌겍게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황토가 그렇게 붉은 것은 처음 보았다. 황토의 그 붉디 붉은 색상에 전율하였다. 초봄의 산야는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 산야를 다 집어 삼킬 듯 붉은 황토는 계속 밀려 나갔다. 순간 나는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동서 자연관의 차이!

봄별이 파사로이 내려 췌는 들녘은 무념무상의

자족적 자연 그대로였다. 그것은 바로 동양화의 세계이고,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이다. 그러나 운동장 공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훼손해가는 공사 현장-황토의 모습은 자연을 한낱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서양의 자연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양의 자연관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연은〈아낌없이 주는 나무〉 신화였다. 즉, 인간을 위해 자연은 언제든지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의 극치인 것이다.

‘그래, 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연관을 한 화면에 맞닥뜨려 보여 주자!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상단 부분은 먹을 이용하여 동양화풍으로 그렸고, 하단은 서양화의 방법으로 아크릴릭과 유화로 그렸다. 황토를 제외한 풍경은 전주대학

주변 전체를 종합하여 다시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색깔을 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실제 보이는 것과 같은 황토색을 바르니까 원래의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색상을 바꾸고 채도를 계속 높여 보았다. 결국 거의 빨강 원색에 가까이 가서야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동서 자연관의 충돌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순간이었다.

동양의 영원한 침묵, 명상, 침잠, 관념과 서양의 아우성, 밀어 붙이기, 까발려 다시 만들기 등 도전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화면이 만들어졌다. 만약 이 그림에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나는 '동서 사상의 차이, 철학과 미학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했다' 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그것도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니까."

대략 이상과 같은, 진술서라면 진술서이고 해명서라면 해명서인 작품에 대한 설명서를 썼다. 나는 다른 작품과 함께 이 작품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안은 채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내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문제의 증거(작품)와 함께 빼도 박도 못하는 올가미에 씌워 인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시는 얼마나 서슬 푸른 세상이었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던가. 당시 내 나이 서른셋. 네 살짜리 딸아이와 한 살짜리 아들,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문화공보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곳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앞에서 내 그림을 펼쳐 보였다. 사람들이 자석에 끌려 붙는 쇠가루처럼 확 몰려 들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소리로 소근거렸다. '생각보다 더 무섭다', '온통 붉은 색이네' 등등.

나는 김진무 예술과장의 안내(?)를 받아 작품 네 점을 문공부에 제출하고(사실은 압수당하고) 나서

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갑자기 눈 앞이 노래졌다. 그 후 나는 한참 동안을 악몽에 시달렸다. 시도 때도 없이 특하면 누군가가 와서는 나를 체포해 가는 것이었다. 내 덕에 겨우 전주대학에 시간강사를 하고 있던 민정기는 곧바로 짤렸다. 나는 총장과 매우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 후, '시말서' 를 써야 했다.

이후 나는 정부의 각종 교육훈련에 우선적으로 불러 나갔다. 새마을 교육을 받고, 팔자에도 없는 전방 시찰도 하였다. 이리 저리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김정헌(공주대 교수)兄도 혹독한 대접을 받았다. 학장에게 끌려가 수모를 당했는데, 당시 학장은 김정헌兄에게 '당신은 국립대 교수인데 공무원의 복규정정을 일탈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는 강압을 계속 했다.

전남대 신경호의 충격이 제일 컸다. 이 사건 블랙리스트의 가장 위에 기록된 신경호는 대학 총장에게서 '교수냐, 화가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 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그는 결국 그림 그리는 활동을 포기하겠다고 '각서' 를 쓰고 대학에 남았다.

대부분 <현실과 발언> 동인들이 그대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지만, 끝내 그는 나오지 못했다. 신경호와 함께 학부시절을 함께 보낸 나로서는 그의 빼어난 예술적 열정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왕성하게 작업해야 할 젊은 시절에 끝없는 방향으로 내몰려야만 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이었다.



임옥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74 동대학원 졸업
1979-81 광주교육대학 교수
1981-92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986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1993-94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
저서 /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벽 없는 미술관